



골뱅이·원숭이 고환·생쥐·고양이 발... 나라마다 해석 제각각

이메일 주소서
이름과 구분하는
앳(at) 마크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인터넷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메일 주소에 쓰이는 앳마크(@)는 각 나라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될까. 영어의 "at" 기호인 이 표시는 나라마다 문화적 특성이 반영돼 독특하게 불리고 있다. 스웨덴에서 코끼리코로 불리는 반면 세르비아에서는 원숭이이고, 네덜란드에서는 원숭이의 고환이며, 한국에서는 달팽이(또는 골뱅이), 대만에서는 생쥐이다. 그리스에서는 새끼 오리, 헝가리에서는 작은 벌레, 슬로베니아에서

는 원숭이 꼬리로 각각 불린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자사 의미에 있는 영어 의미의 @ 표시가 영어권에서는 본래 의미로 불리지만 말 이 다른 외국에서는 원래 의미와 상관없는 엉뚱한 의미로 해석되는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타이베이 소재 대만국립대학의 언어학 조교수 청 카렌 스테펜은 "일종의 로르샤흐 검사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르샤흐 검사는 다양한 의미로 볼 수 있는 잉크 얼룩 같은 어떤 형

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고 사람의 성격을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 표시도 각 문화권에 따라 익숙한 독특한 취향으로 해석됐다는 분석이다. @표시가 단순, 간결하다는 점도 문화권에 따른 상상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이스라엘에서는 @을 스트루벨(화덕에 구운 과자의 일종)로 부르며 체코에서는 청어를 말아 만든 피클로 지칭하게 된 것도 이렇듯 그 문화의 작용이라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어떤 나라에서는 @

표시가 여러 가지로 불리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가 코끼리로 외에 전통 계피 빵이나 코끼리 귀, 원숭이 꼬리, 고양이 발, 고양이 꼬리, 비스킷의 일종인 프레텔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영어가 많이 보급된 핀란드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에서는 영어식으로 불린다. @표시는 1971년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해 이메일의 대부분이 된 레이 콜린슨이 이메일 주소의 분리자로 선택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0 호남 IT 컨퍼런스·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전북임베디드 시스템연구소가 내놓은 즐음방지 센서가 부착된 의자를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날개 달린 대형공룡 익룡

날개 달린 대형 공룡인 익룡은 능숙한 비행가였으며 강력한 앞다리 근육을 장대처럼 땅에 짚고 뒷다리 근육을 움직여 날아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이언스 데일리가 최신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과 미국 채텀 대학 과학자들은 익룡의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 날지 못했을 것이라는 최근 학설을 반박하는 연구를 미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 플러스원(PLoS ONE)에 발표했다.

최근 고생물학자들은 가장 큰 녀석의 선 키가 기린만큼이나 되는 익룡이 날 수 있었는지를 놓고 돌로 갈라져 있는 데 익룡이 날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펼친 양날개 폭이 최고 12m나 되는 익룡은 너무 크고 무거워 비행 동작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근거를 대고 있다.

연구진은 "새들은 대부분 도음단기로 속도를 얻어 날아오른 뒤 날갯짓으로 비행을 계속하며, 몸집이 작을 경우 정지 상태에서 곧장 날아오르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익룡은 새가 아니라 골격 구조나 날개 비례, 근육량 등이 새와는 아주 다른 '나는 공룡'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익룡의 키가 기존 가설보다

작은 5m 정도였고 양날개폭은 10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양날개폭 12m라는 기존 추정치를 적용하면 몸무게가 2배나 나가게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익룡은 단순히 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륙을 횡단할 정도의 강력한 비행력을 가졌으며 새 새 없이 날개를 퍼덕일 필요도 없이 잠깐씩 큰 날개를 힘차게 퍼덕임으로써 고속으로 순항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많은 새들이 키가 커지면서 날개 힘이 약해지는 것과 반대로 익룡은 몸집이 커질수록 날개와 근육이 강해져 계속 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

개인정보 보호·사진관리 철저 소지품 자랑 말고 감정 조절도

자넷 스미스(여·18)는 소셜네트워크사이트인 페이스북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친구 요청'을 받아들였다. 앰버 무어라고 밝힌 이 친구는 스미스가 갓 입학한 캘리포니아주립대 샌타버바라 캠퍼스의 동급생인데다 텍사스로부터 스미스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 온 여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같은 공통점으로 곧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으며 무어는 스미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스미스는 갑작스러운 초대에 당황해하면서 무어의 페이스북 계정에 들어갔다가 무어의 친구들이 모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직전에 살았다는 텍사스 거주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미스는 부모와 함께 확인한 결과, 무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스미스의 부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페이스북에 거짓정보를 올린 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포브스 인터넷판은 17일 페이스북 등에서 이 같은 실수로 범죄인들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 리스트를 소개했다.

다음은 포브스가 제시한 리스트.

▲구체적인 개인정보 공개하지 않기 = 단순히 이름과 주소만으로도 ID를 훔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진 관리 철저 = 사진은 나이와 집, 친구, 가족 등에 대한 것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등 1000 단어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범죄자들은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사기 등을 칠 때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

▲가치있는 것 자랑하지 않기 = 소셜네트워크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가치 있는 소지품을 자랑하는 것은 범죄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될 수 있다.

▲휴가계획 공개하지 않기 =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휴가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인들에게 빈집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온라인상 감정조절하기 = 자금문제가 부각했다는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 범죄인들은 온라인 대박사기 등을 이용해 유혹할 수 있다. /연합뉴스

S(상황인식) M(융합) A(능동) R(신속) T(맞춤형)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을 잡아라”

2010 호남IT 컨퍼런스...창조적 파괴 필요 지적

S·M·A·R·T를 갖춰라. 그리고 전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을 잡아라. 상황인식(Situation-aware)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융합(Mash-up)해 능동적(Active)이고 신속(Rapid)하게 소비자들에게 맞춤형(Tailor-made)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모바일 앱 시장을 잡을 수 있다.

18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0 호남IT 컨퍼런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남궁중 주무관은 스마트폰 모바일의 패러다임이 PC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로 변화되면서 전세계 앱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주무관은 "PC 판매량이 2008년 2억9080만대에서 2012년 4억4310만대로 52.4%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스마트폰 판매량은 1억3930만대에서 4억9190만대로 2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모바일 시장이 속도, 디자인, 융합 등의 기능위주의 시장에서 모바일OS+앱 기반의 응용서비스 중심으로 진화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상황에 기반해 정확히 선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67억 달러 규모의 전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이 2013년 29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스마트폰 국내 도입 지연과 모바일 앱 유통시장 미성숙으로 국내 앱 개발자가 부족해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 의료, 교육 등 공공응용서비스가 크게 각광받고,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린 호남 IT 컨퍼런스·전시회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생존전략 등을 논의하는 컨퍼런스와 70여 기업들의 신제품 및 신기술 전시회가 진행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가장 빠른 웹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9”

한국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korea)는 최신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9(Internet Explorer 9, IE9)가 자바스크립트 처리 속도 테스트에서 타 브라우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테스트는 '웹킷 스파이더 마이크로벤치마크'(Webkit Spider micro-benchmark)로, 각각의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측정하는 테스트다. PC의 성능을 떠나 웹 브라우저 엔진에 따른 속도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신뢰도 높은 테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자바스크립트 처리속도가 빨라지면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입력에 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웹상의 콘텐츠가 화면에 보이는 속도도 빨라진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이 한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 웹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 처리속도 개선에 따른 생존전략 등을 논의하는 컨퍼런스와 70여 기업들의 신제품 및 신기술 전시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공장매매

- 위 치 •
-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 대 지 •
- 6,345㎡(1,920평)
- 건 물 •
- 1,685㎡(510평)
- 전 기 •
- 계약전력 200kW
- 호이스트 •
- 3+3ton, 5ton(협의)
- 현재가동중

핸드폰 : 011-612-2823
이메일 : diid71@hanmail.net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조대병원후문앞 고시원부지
면적 539㎡(163평).3.3㎡당 230만원. 5층철거완료.허가 득함. 고시원 약 50실가능.

건물매매(용봉지구)
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367㎡(111평).3층. 연면적598.8(181평) 매매가75억.보증금6,000만원 월330만원.근린 생활시설 입점.

쌍촌동 내대지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강관사 1,845㎡(558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3.3㎡당 160만원. 도시형생활주택,종교시설, 요양원적지.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입.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7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쌍촌동 2차선도로 내대지
서구 쌍촌동 2차선도로 내대지 513㎡(155평). 제2종 일반주거지역매매가 3.3㎡당 235만원. 카센터, 식당, 업 무용빌딩 적합.

상무지구 내대지(업무용지)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함. 993㎡(300평).매 매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

나주 문평전원주택지
나주시 문평면 저수지옆 2,596㎡. 3.3㎡당 60,000원. 광 주시청에서 25분거리 2차선포장도로 접함. 저수지조망 양호. 농림지역. 전원주택적합.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옆
010-3616-8698. 062-233-2222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6평 134평
100평매물(다량보유)

첨단지구

상가건물매도 매도가 5억3천, 9억5천, 10억, 13억, 14억5천, 31억, 55억0억 78억(다량보유)

구합:첨단산단, 하남산단, 평등산단 공장 및 공장부지
구합: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공장: 하남공단, 평등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사, 자연녹지,있음)

첨단지구: 상가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 (다수보유)

첨단지구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체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동이 빌딩 1층)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대륜산단 공장매매(임대가능)

- ▶ 공장용지: 15,000평
- ▶ 건 물: 9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장성동화 공장매매(임대가능)

- ▶ 공장용지: 2400평(계획관리)
- ▶ 건 물: 580평(동력200k)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점)(700평)
- ▶ 자연녹지: 700평 ▶ 일반공업지역: 8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 ▶ 대 지: ①500평 ②1200평
- ▶ 준주거지역(동림2지구 건너편)
- ▶ 건 물: ①상가 30평, 창고80평
②상가 200평 공장2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 ▶ 대 지: 2000평(생산녹지지역)
- ▶ 6차선 도로변(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 ▶ 매매가격: 17억원 (건물 600평 포함)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계획도로점 주거지역 2160평 공시지가 4억9600 투자까지 줄음 매도 3억8천
- 유주소 광산구 땅 491평 용지 5억 교환가능 9억
- 금남로4가 8층건물 상업지 대지776㎡(235평) 건평 862평 경매 감정가 31억6천 사육일대입-요양시설등 적합 14억
- 금남로5가 대지503㎡ 152평 공시지가 4억3천 매도4억8천
-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가 3억천 매도 2억4천
- 마북동 자연녹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5억 매도 5억3천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평 206평 6층 건물 5억
- 화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62평 173 대출 3억 매도 6억
- 월평 건물 광주역 앞 대지 108 건평 3833평 건평 11억 8천 대출2억 5천천원 9천 월 650 매도 6억7천
- 광산구 신촌동 그린벨트 산과 3470평 공시지가 1억9천 매도 1억5백
- 중흥동 대지104 건평300 대출3억5천 매도6억7천
- 금남로5가 여관 대지111 건평300 객실26 공시지가 4억9천 매도5억2천
- 남구 서동 월산파출소부근 대지141 건물은 3층과 2층의 2동있음 공시지가 4억5300만원 감정5억6천천원 매도2억9천

■매도·교환

- 용평동 전남대후문 고시원, 독서실건물 대지671㎡(203평)건물510평 대 출 11억원 수입은 월 2000만원선 땅과 교환가능 매도 20억원
- 두암동은 4차선도로 195평 교환, 병원, 학원등 적합 평당 370만원
- 화정동 해변면 (문장지구) 4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550평 창고·식 당·공장등 다용도 1억9300만원
- 생산녹지 창고 등 다용도 광산구 비아 2722평 13억
- 중흥동 유실수 있는 담 575평 대지 10평포함 1억3천
- 북구 중흥동 대지 147평 전원주택 적합 7900만원
- 생산녹지 서구 덕흥동 1602평 공시지가 6억3천 매도 9억9천만원
- 자연녹지 706평 매월동 서광주역 부근 매도 9억9천만원
- 화순군 능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이할 1900만원
- 화순군 함평면 관리지역 일가 13862평 처량 진입할 1억5천
-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1631 평과 창고, 공시지가 14억 3천 창고는 1년 사글세 2200만원에 임대중임 22억 5천만원
- 월평동 화정동 대지 917평 건평 145평 원룸 10개 투룸 3개 스키를 2개 주택있고 전세 1억원 월380 매도 5억3천 주택은 주인이 사용
- 투자 할평군 나산면 삼축리 관리지역 전 1688평 1억 5백만원, 함께있는 국유지 2300평도 사용함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